

광주 자치구 '새 이름' 찾는다

동·서·남·북 방위명 획일적...지역 특색 담은 명칭 변경 필요 주장 시, 오늘 시청서 토론회...막대한 전환 비용·지역내 대립 우려도

동·서·남·북 방위명 형식의 획일적인 광주 자치구 이름을 바꾸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지역 사회에서 명칭 변경에 따른 막대한 전환 비용과 지역 내 대립 등을 우려해 불필요한 갈등만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의 특색 등을 담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18일 시청 무등홀에서 자치구 명칭 변경 토론회를 연다.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통해 주요 쟁점과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 이명규 광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진다.

남면을 사평면, 북면을 백야면으로 변경한 화순군 명칭 변경에 참여한 이영일 전 화순문화원장을 비롯한 이영철 전남대학교 교수, 박필순 광주시의회 의원, 김석웅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다른 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광주 자치구 명칭 변경의 타당성,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23일 행정구역 개편 관련 논의에서 나온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5개 구정장, 시의회 의장, 교육감 등은 민선 7기에서 제안한 구간 경계 조정 추진을 중단하되 구 명칭 변경을 포함해 인구, 재정, 생활 인프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조정 방안을 모색해가는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천 미추홀구를 예로 들며 자치구 명칭 변경 검토 의사를 내놓기도 했다.

광주시는 구(區)제가 도입된 1973년 동구와 서구, 1980년 북구가 설치됐다.

1988년에는 당시 전남 광산군이 광주로 편입되면서 광산구가 생겨나고 1995년에는 남구가 추가 설치되면서 동·서·남·북·광산 등 5개 자치구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화창한 가을 낮 '브런치 콘서트' 1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 광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산책하는 주변 직장인들을 위한 브런치 힐링 버스킹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 서구청 주최로 열린 브런치 콘서트는 이날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점심시간 동안 악기 연주, 대중가요, 재즈, 국악 공연 등이 진행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스마트 축산'에 110억원 투입

20일까지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사업자 모집...내년 1월 확정

전남도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10억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2023년 사업 추진을 위해 20일까지 예비 사업자를 각 사·군을 통해 선정받고, 전문 컨설팅업체가 예비 사업자 사전 컨설팅을 11~12월 중 실시해 내년 1월 중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바라는 농가는 오는 20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축산업 허가증, 축사 등기부등본, 신용조사서 등을 갖춰 시·군(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현대화 시설이 갖춰진 축사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 시설 구축이 예정돼 축산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한 축산농가다.

지원 내용은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축사 내의

부 환경 모니터링 및 조질장비 ▲약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자동급이기 ▲로봇착유기 ▲자동사양관리기 ▲발정탐지기 등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지원 비율은 국비 30%, 용자 50%(연리 2%,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자부담 20%다.

전남도는 한우 축사 첨단화를 위해 한우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지방비 30%를 추가해 보조율을 60%까지 높일 방침으로, 농가별 1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전남도는 축산 분야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 사업을 2014년 처음 시행한 이후 올해까지 1469호에 591억원을 지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과자·분말로 먹는 전남의 해산물

도, 가공식품 품평회...키조개 통관자 스낵·김국 등 선보여

전남도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최근 전남의 우수 어촌계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개발한 가공식품 품평회를 개최하는 등 수산물 가공식품의 본격 출시에 돌입했다.

이번 품평회에서는 여수 수산가공업체 (주)아름과 장흥 수문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가 함께 개발한 '키조개 통관자 스낵', 해남 송호어촌계의 '땅갈래 전복 스낵', 해남 임하어촌계와 나주 농수산물가공업체 '살롬'이 함께 한 '바다김 그대로 김국' 등을 선보였다.

품평회는 전남도청 섬해양정책과, 수산유통가공과 등 자치단체와 완도해양바이오센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또 (주)아름과 (주)살롬 등 수산물가공업체 (주)피쉬데이, 장흥 수문·해남 송호·해남 임하 어촌계, 센터 자문위원인 양근석 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최갑준 전 전남도 수산자원과장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전남 어촌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민 소득을 증진하기 위해 도내 수산가공업체와 어촌계, 전문기관인 완도 해양바이오센터 등을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

해 매년 수산물 가공 상품을 개발 중이다. 센터가 주도해 개발한 해남 송호 전복 분말과 여수 안포조개 분말 등 어촌특화상품 2종이 친환경 식품시장에 첫 진출해 지난 2019년 8월부터 아이쿱 생협이 운영하는 '자연드림' 전국 300여 매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고흥 신평의 마음미역, 마음담은 미역도 시판하고 있다.

전남도와 센터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 '바다김 그대로 김국'을 출시하고, 키조개·전복 스낵은 수장·보완한 뒤 한 차례 더 품평회를 거친 후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이들 가공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도 함께 전국 최초 어촌계 직거래망인 바이씨(www.buysea.co.kr)를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어촌 소득 증진에 나설 방침이다.

김충남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전남은 전국 수산물의 절반 이상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유통에 매진해야 한다"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우수 어촌계를 꾸준히 발굴해 어민 소득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스포츠대회 최적지 입증

1년간 1141개팀 37만명 다녀가...경제유발효과 315억원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간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참여를 위해 전남을 찾은 선수단이 1141개 팀 37만24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경제유발 효과는 31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2020~2021년 시즌 전지훈련 등 참가 연인원(15만3100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도내 공공체육시설을 구축하면서 전남이 최적의 전지훈련지 및 각종 대회 개최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개최 장소로 각광을 받은 지역은 해남, 강진, 여수, 구례, 순천 순이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이 최우수상, 강진군과 여수시가 우수상, 순천시와 구례군이 장려상, 고흥군과 영광군

이 노력상에 선정됐다. 부상상으로 최우수상은 6000만원, 우수상은 4000만원, 장려상은 2000만원, 노력상은 1000만원의 체육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전지훈련 주요 운동 종목은 축구, 야구, 럭비, 배드민턴 순이었고, 출신 지역별로는 수도권 46%, 충청권 15% 등 전국에서 전남을 찾았다.

이는 전남 모든 사·군에서 스포츠 인프라를 잘 갖추고 각종 할인혜택으로 전지훈련 등 유지활동을 전개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전남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온화한 기후, 맛있는 음식, 편리한 교통 여건 등도 한몫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일본 센다이시 "교류 확대"

자매결연 20년...양 시장, 우호 증진 방안 화상 논의

광주시와 일본 센다이시가 자매결연 20년을 맞아 각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7일 고리 가즈코 센다이시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두 도시는 2002년 자매결연을 계기로 스포츠, 교육, 문화, 복지 등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강 시장은 "광주는 인공지능(AI) 대표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이자 5·18 등 민주주의 연구와 세계화의 산 교육장이 되고 있다"며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고리 가즈코 시장은 "최근 20년간 일본에서는 드라마, 케이팝(K-POP), 음식 등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져 두 도시 교류에 관심도 커졌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한 교류를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 센다이에서 열리는 제40회 전국 도시 정인 박람회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센다이시 부시장 등은 19일 광주를 방문해 세계 김치 축제 등에 참석한다. 센다이시 전통공연단은 전통 무용인 '잠세 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시는 오는 12월 한미일 자매도시 e스포츠 경기에 센다이 선수단을 초청하고 광주시 대표단도 센다이에 파견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

